

“대화와 교류로 모두 평화로운 세상 기원”

제16차 한중일 불교교류대회 성료

“오늘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제앙의 원인을 불교적 관점에서 깊이 성찰하고 참회하여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 실천에 있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야할 길이 달라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류는, 무분별한 자연환경 파괴를 중단하고, 모든 종교는 대화와 교류로 서로를 인정하여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생의 터전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불교계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의 평화와 상생을 기원하는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이하 한중일대회)가 지난 11월23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하이난도(海南省)에서 성료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대표단 100여 명을 비롯해 삼국의 불교지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6차 한중일 대회는 11월27일 산야(三峯)시 탕갈호텔 대연회장에서 기념행사에 이어 ‘자연재해 후 심리치료’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개막식에서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은 “문명의 발달은 인류에게 많은 편리를 주었지만 동시에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자원개발과 환경파괴,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자연재해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교계는 인류를 향해 진정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개회사를 전했다.

중국, 일본 대표 스님의 개회사에 이어 분행사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1996년 첫 교류를 시작한 이후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지만, 올해는 특히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직접 치유하는 ‘응용불교’를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필리핀에 큰 피해를 준 초강력 태풍 하이옌은 이곳 하이난도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남긴 터였다.

기조연설은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가 맡았다. 회정정사는 “지구촌은 재생가능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과학의 이기와 편만한 삶을 무한히 갈구하면서 그런 생명력이 방해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우리가 재생가능하고 복원 가능한 자연의 힘을 지킬 때, 인간의 심리적, 물리적 치유복원력도 그 힘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 대회에 이어 참가자들은 남산사(南山寺)에서 세계평화기원 의식을 진행하고, 바다 위에 건립한 108m 크기의 삼면관세음보살 진경의 시간을 가졌다. 평화기원 의식은 중국과 한국, 일본이 각각 고

3개국 지도자 中 하이난도서

‘자연재해 후 심리치료’ 주제

불교의 사회적 역할 모색

유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예불과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스님의 상축,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세계평화기원문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11월26일에는 중국불교협회 초청으로 만찬이 진행됐다. 만찬에는 중국 공산당 장스젠 서기, 왕조안 국가종교사무국장, 허시칭 해남성 부성장을 비롯해 중국불교협회 주요 지도자 스님이 참석했다. 만찬사에서 한국측 대표 영담스님은 “한중일 삼국이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 발전하는 원리로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을 제시하고 싶다.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는 구분은 본래 없는 것이니, 집착을 버리고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라는 스님의 말씀을 따라 우호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자”고 말했다. 원효스님을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쌍화별곡’은 12월 중국에서 순회공연이 예정돼 있다.

한국대표단은 또 지난 11월25일 일제가 패망하자 강제징용자 1000명을 생매장 시킨 천인강을 방문하고인들을 위로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11월28일 귀국했다.

▶관련기사 5면
하이난도=안직수 기자



11월27일 중국 하이난도 산야시 탕갈호텔에서 열린 제16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본대회에서 삼국의 주요 지도자들이 환영인사와 개회사를 하고 있다.

社告

공동캠페인

필리핀 태풍피해 주민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태풍 참사로 수십만의 사상자와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한 필리핀에 자비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자비나눔 계좌

국민 023501-04-125198 (예금주: 불교신문사)
농협 301-0137-6667-11 (예금주: 이룸다운동행)

■ 문의 :

02-730-4488(불교신문)
02-737-9595(이룸다운동행)

대한불교조계종 · 불교신문

‘종교인들의 시국발언,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 종교 사회 망라

대토론회 개최한다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계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를 규탄한 것을 두고 정교갈등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불교계가 ‘종교인들의 시국발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아단법석을 연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종교인들의 잇따른 시국선언을 놓고 한쪽에서는 과거 권위주의에 맞서 양심과 저항의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며 현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일부 발언이 국가와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종교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

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자칫 정치권과 종교계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출재가자들의 자발적 결사모임 붓다로살자는 12월3일(11월29일 현재) 오후2시부터 5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아단법석’을 개최한다.

이번 아단법석을 주최한 단체들은 토론주진 배경에 대해 “이번 시국발언을 둘러싼 갈등의 뿌리는 좌우대립과 동족상잔의 경험에서 생겨진 것으로 정전 60주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갈등의

실상을 차분하게 드러내 토론하고, 원인 등을 짚기 위해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아단법석에는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스님, 성연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김형태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인명진 갈릴리 교회 목사, 홍성길 국민대 교수 등이 패널로 나온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도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 패널들은 종교인들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에 대한 견해, 시국발언을 둘러싼 사회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등을 주요논제로 토론을 한다. 패널 토론에 이어 객석에서 자유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대상 1000만원 격상

일반·전문가 구분… 모집 요강 발표

1월 20일~25일 접수

템플스테이 무료 제공

짧은 역사에도 단일 행사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이 대상 상금을 1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는 등 대회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스님)은 이같은 내용의 제6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모집요강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 변화를 줬다. 기존의 단일 주제에서 벗어나 유형과 무형의 전통문화유산을 모두 활용한 상품개발을 목적으로 ‘일반부문’과 ‘전문가부문’으로 구분해 차별화했다. 일반부문은 판매가 5만 원 미만의 중저가 상품으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주제로 한다. 30만원 미만의 중고가 상품을 개발하는 전문가부문은 사찰 설화와 사찰건축물, 불교문화콘텐츠를 주제로 삼는다. 일반과 전문가로 분류했지만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상금도 크게 늘었다. 기존에는 대상 상금이 300만원이었지만, 6회부터는 전문가부문 대상은 1000만원, 일반부문 대상은 500만원 등 모두

3300만원의 규모로 대폭 확대됐다.

1700년 한국불교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전 세계에 우수성을 전달할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이번 공모전은 오는 2014년 1월20일부터 25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는다.

단장 정산스님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상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에 따라 상품의 다양화는 필수적이다. 다양한 계층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2개 부문으로 구분했다”며 “공모전을 통해 한국불교의 정신과 문화적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전 세계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교문화상품공모전은 지난 2008년부터 개최, 단일 공모전으로서는 최대인 500여 점 이상의 작품을 매년 접수 받아 수상작을 상품화하는 등 전통문화 콘텐츠의 상품 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한편 문화사업단은 공모전 참가자들에게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 템플스테이는 선착순 30명에 한해 오는 11일에서 12일까지 1박2일간 강화 전등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하영 기자 hykim@bulgyo.com

세민 정권 대원 지성 성과 성우스님

‘대중사 법계’ 품서 결의

44차 원로회의

조계종 원로회의의(의장 밀운스님)는 지난 11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44차 원로회의를 열고, 대중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로회의는 세민, 정련, 대원, 지성, 성과, 성우스님 등 6명의 현직 원로위원의 대중사 법계 품수 심의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원로의원 스님들은 현행 법계법에 따라 대중사 법계 품수

를 위해서는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나 각 단계에서 어느 부분을 심의하는 지 명확하지 않다며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것을 종단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대중사 법계는 승단이 40년 이상 된 비구 스님을 대상으로 하며, 중앙종회의 동의와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법계위원회가 법계산림을 개설하면 종정예하가 대중사 법계를 품서한다.

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2014 불교박람회

◇◇◇ 참가업체 모집

참가대상 | 사찰건축·불사·인테리어 / 아트페스티벌·불교미술 / 전통문화산업(차·의복·소품) / 문화상품·출판 / 템플스테이·사찰음식 / NGO·사회적기업 / 수행정신문화산업

참가인내 | 기본부스 (3m*3m) : 1,500,000원
독립부스 (3m*3m/전시면적만 제공) : 1,300,000원

참가신청기간 | 2013년 12월 27일까지 (부문별 부스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참가효과

- 스님들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 각 사찰 주지스님 및 실무자들의 참여로 실질적인 구매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 불교의 최고 언론사인 신문사와 잡지사가 공동주관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불교박람회는 공신력 있는 종합마케팅의 장으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전시업체들의 정보가 실린 전시참가업체 디렉토리로1년 365일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BUDDHA ART 2014 FESTIVAL

2014붓다아트페스티벌 Buddha Art Festival

참여작가·갤러리모집

▶ 메인전시 참여작가·갤러리 모집

참여대상	불교와 한국전통문화를 주제로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 갤러리/ 단체
모집부문	회화·조각·공예·사진·미디어 등 모든 시각 예술분야
참여형태	1)부스 2)벽면

▶ 기획전 Art Donation Project <20만원 展>

참여대상	작품의 가격이 20만원대인 불교미술 및 전통미술작품
모집부문	회화·조각·공예·사진·미디어 등 모든 시각 예술분야
참여형태	벽면전시 작품판매시 추천작과 판매수익금 배분
참가비	10,000원/ 1작품당

▶ 참여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접수기간 2013년 12월 27일까지
접수메일 ba@hanmail.net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문의

BAF2014사무국
전화 02)2231-2013
홈페이지 www.bexpo.kr
페이스북 facebook.com/bexpo

2014. 3. 6. 목 - 3. 9. 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SETEC 3호선 학여울역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주관

불교신문 불교문화재단

시행

주최회사
마인드디자인

협력

사단법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전화 02)2231-2013

팩스 02)2231-2016

홈페이지 www.bexp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bexpo

